

###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역풍이 화마를 막았으니

### 사천왕상(四天王像)의 위치(位置)와 명칭(名稱)

낙산사에서 불사에 전념할 때의 일이다. 당시 낙산사 원통보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전각들이 거의 불에 탔다. 불 단 전각들 한 가운데 있던 조선 후기에 지어진 사천왕각은 원통보전을 향한 방향의 1/3정도 불탄 느티나무들 뒤에서 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동화사 사천왕탱 광목전왕도

순수한 나무로만 이루어진 사천왕각과 그 안 4개의 사천왕상은 바로 옆 보물 제479호 동종(銅鐘)과 범종루(梵鐘樓)가 허무하게 불에 무너져 내렸을 때 담담한 모습으로 영겁(永劫)처럼 서 있었다.

후에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사천왕각에서 불과 1~2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느티나무들이 불이 붙었을 때, 사천왕각에서 신비로운 역풍(逆風)이 불어 불이 꺼졌다는 것이었다. 사천왕각의 위치와 나무의 위치를 볼 때, 사천왕각 방향에서

서방 광목전왕은 본래 자재천(自在天)의 화신으로 보통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눈을 부릅뜨거나 입을 크게 벌려 나쁜 이야기를 물리치는 역할도 하고,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려, 고통 속에서 도심(道心)을 일으키려는 서원을 세웠다. 광목전왕은 대개 용(龍)을 권속으로 삼기에, 손에 용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강철(鋼鐵)이라는 독룡을 잡아 허리에 매고 버클로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생명들이 독룡의 피해를 입을까봐 묶어 두고 있는 것이다.

### 낙산사 전소 때 생존한 사천왕상 사천왕상 명칭 잘못 된 점들 많아

바람이 불어 불을 끈다는 것은 무언가 초월적인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낙산사 사천왕각은 사각형의 전각(殿閣)안에 좌우로 두 천왕들이 서있다. 원통보전(圓通寶殿) 방향을 보면서, 좌측 상단에 북방 다문천왕(多聞天王), 하단에 서방 광목전왕(廣目天王), 우측 상단에 동방 지국천왕(持國天王), 하단에 남방 증장천왕(增長天王)이 모셔져 있다.

각각의 천왕들의 명칭과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동방지국천왕의 얼굴은 동쪽을 향해 바라보면서, 손에 악기 중간에 두 개의 눈이 달린 일종의 기타 같은 비파(琵琶)를 들고 있다. 조선 후기 이후에는 원나라 라마교(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비파를 든 동방지국천왕이 대부분의 사천왕각과 탱화 속에 존재하고 있다.

남방증장천왕은 동방지국천왕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있다. 지물(持物)에 관해서는 <일지불정류왕경>이나 <다라니집경> <만다라도상집> 같은 경전들에 묘사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조선 후기 증장천왕들은 대개의 경우 얼굴은 적육(赤肉)색의 분노형이고, 갑옷 위에 천의(天衣)를 두르고, 오른 손에는 검을 쥐고, 왼손은 허리에 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다니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천왕각이 사천왕들의 명칭을 틀리게 붙여 놓은 것을 많이 보았다. 심지어는 서울 강남 코엑스 근처의 어느 조계종 대찰에서도 그 명칭이 틀린 것을 보았다. 아마도 불 열불로 극락왕생을 하려면, 다른 분을 부른다면 과연 그 효력이 있을런지는 미지수(未知數)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 우울한 내 마음 영화로 치유하자

최근 들어 '치유' '힐링(healing)' '멘붕(멘탈붕괴)' 등 정신·마음과 관련한 단어들 이 자주 눈에 띈다. 공중파방송 프로그램 제목에서부터 인터넷까지 이러한 단어들 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하고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한국을 방증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가벼운 우울증 증세가 있어도 주위의 시선 때문에 정신과 병원을 찾기가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 영화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준형 비커밍연구소-아트테라피센터 소장(現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겸 불교상담 심리전문가)은 "영화치료는 내담자가 특정 영화를 선정한 영화를 감상한 후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대안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습득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통찰을 통해 성장과 치유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치료는 상담과 심리치료에 영화 및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지칭한다. 외국에서는 VCR이 보급된 1990년대부터 영화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영화 치료를 하는 심리상담소가 생겨났다.

영화치료 대상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하다. 왕따, 학교폭력 문제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다.

김준형 소장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예술매체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그들의 눈높이에서 부정적 감정을 해소시키고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며 "영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와 바람을 잘 반영해 그들의 진로와 비전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치료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도 활용된다. 사진은 재소자들에게 '버킷리스트'와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여주고 킴 선생이 책상에 올라가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말했다고 말했던 장면을 응용하고 있는 모습. 재소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다.

영화치료 방법으로는 먼저 영화를 보고 영화 속 주인공과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것이 기본이다. 상담에 거부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영화를 보면서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부담 없이 얘기하고 속내를 표현한다.

김준형 소장은 "치료에 활용하는 영화는 내담자가 원하는 영화를 먼저 확인하고 그 영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내담자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서 다루지는 문제와 자신의 문제의 연관성을 찾게 된다. 현재 나의 상황과 같은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자기이해를 넓히고 영화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민해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한다.

김준형 소장은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어린이는 집단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켰다. 이 학생에게 영화 '별별 이야기' 중 동물의 농장을 보여주면서 역할극을 통해 왕따 당한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빌리 엘리어트'를 통해 빌리 처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 현재 씨름수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소장은 "아동·청소년에게 영상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이므로 특정 영화 장면이나 스토리를 활용하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준형 소장은 면접관 앞에서 어색하고 자신감 부족한 모습으로 낙방하는 학생에게 월 스미스가 주연한 영화 '행복을 찾아서'를 보기를 권했다. 주인공 월 스미스가 솔직하고 자신감있게 면접을 보는 장면을 자신과 비교해보며 모의면접을 하고 실제 면접을 활용해 비교하고 체크해보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실연으로 괴로워하는 한 여성에게는 영화 '사랑을 찾아서'와 '그남자의 책 198쪽'을 추천했다.

김준형 소장은 "사랑이 끝난 아픔을 위해서 내담자는 슬픈 영화를 보고 우는 것이 좋다. 실연과 관련된 영화를 보고 상실감에 대한 애도작업을 하면 슬픔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김준형 소장이 전하는 이럴 땐 이런 영화를

- \*학업·진로 고민 : 리멤버 타이탄, 죽은 시인의 사회, 키즈 리턴, 빌리엘리어트, 발레교수 소, 스윙 걸즈
- \*학교 폭력에 시달릴 때 : 우리 형, 싸움의 기술, 말죽거리 잔혹사, 파이터 클럽
- \*상실감에 젖을 때 : 개 같은 내인생, 꿈이 되고 싶어요, 기쿠지로의 여름, 마이 걸, 뽀넬트
- \*우울하거나 삶의 의미가 없을 때 :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체리향기, 써니,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델마와 루이스, 내 어머니의 모든 것, 쇼쇼크 탈출, 중앙역
- \*자살충동을 느낄 때 : 글루미 선데이, 디 아더스, 박하사탕, 실비아, 자살관광버스

## 쇠술에서 통일신라 불교를 보다

### 국립중앙박물관, 5월 6일까지 '색다른 고대 탐험'展

1200여 년 전 신라인들은 우물과 쇠술에 유물을 담아두었다. 우물에는 토기, 기와, 나무뿔 심지어 동물들과 10살 정도의 아이를 넣었으며 쇠술에는 향로와 부처님 이 새겨진 화려한 금동장식판을 넣고 쇠조각들을 넣어 숨겼다. 우물 안에서 이러한 유물들이 왜 발견됐으며 무슨 이유로 불교공예품을 숨겼을까.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연아)은 5월 6일까지 '타인검색을 열다-색다른 고대 탐험' 특별전을 개최해 이러한 물음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신라의 어느 이름 모

를 절대로 추정되는 창녕 말흘리 유적에서 확인된 작은 쇠술에 담긴 이야기를 공개한다.

박물관은 "500여 점의 금속공예품을 보잘것없는 쇠조각들로 가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보물들을 숨겨놓은 것을 보면 제사나 의례의 목적이 있어 묻어놓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그 때 보물을 감추고 때날 수 밖에 없는 어떤 급한 사정 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전시에서는 사자모양의 향로와 손잡이 향로 그리고 절의 지붕 끝에서 맑은 소리를 전하는 금동풍탁(風鐺)도 공개한다.



금동풍탁(길이 23.4cm)

이와 함께 박물관은 신라인들이 깨끗한 물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 제사를 지내며 우물에 넣었던 유물들을 공개한다. 유물은 개와 고양이를 비롯한 7~10세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뼈로 2300여 점이나 되며, 토기와 기와, 나무뿔 두레박 금동점 시 순가락 등 목제품과 금속제품 530여 점이나 됐다. (02)2077-9000 이나는 기자

## 시 쓰는 스님들 '선문학회' 출범

시 쓰는 스님들의 모임 '선(禪)문학회'가 출범했다.

선문학회는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선문학회 동인지 <존재의 꽃>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선문학회는 서울 신곡암 주지 원경 스님을 회장으로 10여 명의 시인 스님들이 참여하는 문학모임이다. 선문학회원 스님들은 매년 1차례 이상 시낭송회를 열게 된다. 선문학회 동인은 해인 스님(前 아산 인취사 주지) 구달 스님(양평 예봉사 주지) 행담 스님(삼척 영암사 주지) 수산 스님(양평 유점사 주지) 수철 스님(제주 보리선원 주지) 정우 스님(영월 범용사 주지) 등이 주인공이다. 이나는 기자

**화제의 신간**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3천권 돌파 1주년 기념**

**50% 파격세일**

정가 380,000원

**180,000원**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악식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법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법법을 방편들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 943-6882 / 010-3813-4443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뱀은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정가(권당) 120,000원

**권당 60,000원**

① 신국판/양장본/567쪽 ② 신국판/양장본/712쪽